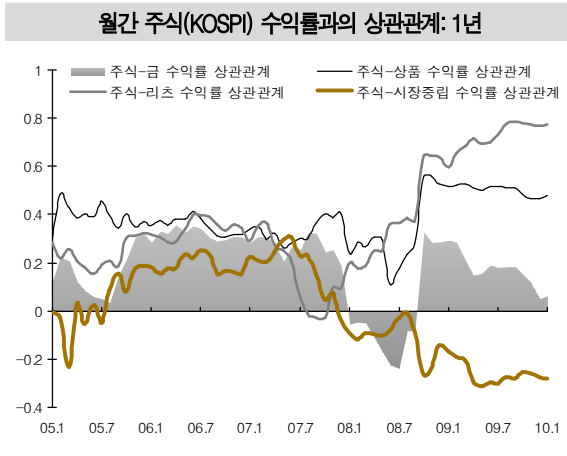


대안투자 전망

김혜준 _ 768-2855 _ hyejeon.kim@dwsec.com

단기적으로 시장 방어적인 CYD, 금 등이 투자심리에 민감한 원유, 금속 보다 안정적일 듯



자료: Bloomberg, 대우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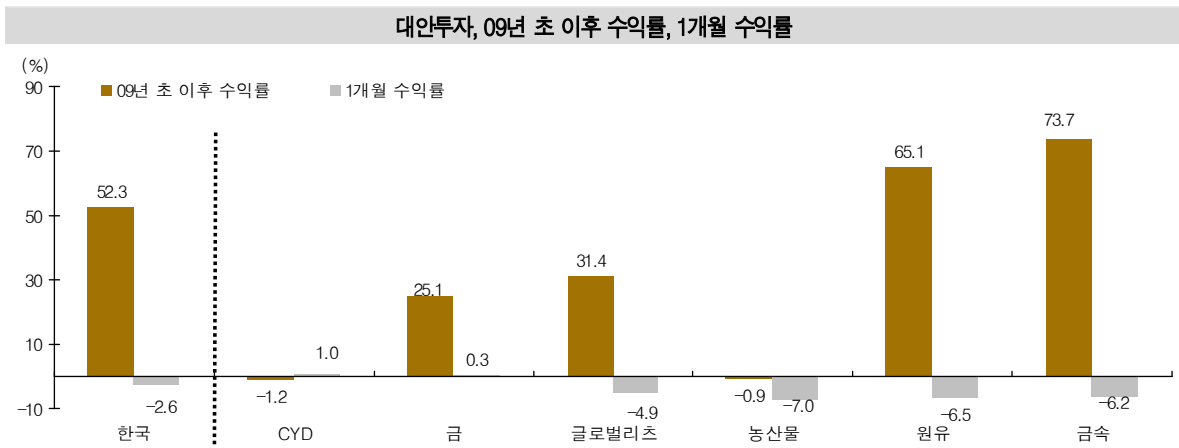
중국 긴축 및 미국 금융업 규제 가능성으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대안자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시장중립형인 CYD와 금만이 강보합을 나타냈고 그 이외의 리츠, 농산물, 원유, 금속은 (-) 수익률을 나타냈다.

CYD는 1개월간 1.0%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이번 달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는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CYD의 경우 주식시장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가 돋보여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혼란기에 우수한 성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을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금은 1개월간 0.3% 상승하였다. 금은 최근처럼 투자심리가 불안해지고 유동성이 우려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때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된다. 투자심리가 호전될 때까지 경기에 민감한 원유, 금속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민감한 원유와 금속은 월간 -6.5%, -6.2%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원자재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기적 매수가 감소한다면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유효하다면 중장기 투자시 높은 수익성을 보일 전망이다.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국가가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나타내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해 단기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단기간내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 원유와 금속처럼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상품 보다는 시장 방어적인 시장중립형 CYD와 금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자료: Bloomberg, 대우증권, 주: 1월 28일 기준